

언론 언론중재위원회 NEWS 사람

제145호

이달의 주요뉴스

2012 중재위원 연수 개최

인터뷰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 회장

2012. 7

CONTENTS

2012년 7월. 제145호

03



이달의 주요뉴스
03 2012 중재위원 연수 개최

06



중재위원 연수기
04 중재위, 제자리 찾기에 나서다

인터뷰 -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 회장
06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8



토론회 개최
08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

해외실무 연수기
09 In San Diego, 4개월째

기고
10 언론피해?
언론조정·중재 지원 변호사단에 맡겨봐

판례토크
11 ‘indicate’, 번역의 어려움을 시사하다

이용재의 잡문 노트
12 <머니볼>과 야구를 보는 새로운 시각

13 위원동정

14 위원회 소식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피해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언론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중재기법 및 제도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2012 중재위원 연수 개최



언론중재위원회는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충남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에서 중재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효율적인 조정·중재기법 및 제도운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연수에는 권성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중재부에서 40여 명의 전·현직 중재위원이 참석했다.

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언론분쟁을 친절하고 성의 있게 해결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피해구제보도문의 개선은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를 위해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제5중재부 어경택 위원(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김창룡 교수(인제대 신문방송학과, 전 경남중재부 위원)는 팀웍의 중요성, 중재위원의 전문성, 진행단계별 조정기법, 조정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조정기법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류석창 조사팀장은 지난해 9월에 채택된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의 보고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검토하기 위해 지난 7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피해구제보도문을 분석하여 보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정학철 부위원장(서울제7중재부)은 “피해구제보도문의 개선은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중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양 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상원 변호사(전 서울제1중재부장)는 “효율적인 조정기법을 위해 중재위원이 당사자에게 부드럽게 대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박무 위원
대전중재부
전 MBC 부국장

중재위, 제자리 찾기에 나서다 - 보고서가 내놓은 4개의 열쇠



2012년 중재위원 연수가 「효율적인 조정·중재기법 및 제도운동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시원한 바람과 바다 내음 물씬한 서해안 안면도의 리솜오션캐슬리조트에서 열렸다. 날씨도 좋았다. 꽃지해변에 있는 할미, 할아비 바위 주변의 낙조가 너무 멋졌고, 천리포 수목원 가는 길에 내려 잠시 거닌 해변길(일명 노을길)의 탁 트임과 가슴에 안기는 짙은 바람은 도시를 떠난 기쁨에 큰 선물 하나를 더 얹어 주었다. 태안반도 해상 국립공원연안의 천리포수목원은 울창한 숲에 목마른 마음을 흠뻑 적셔주었고, 그 수많은 나무와 풀과 꽃들의 존재가 논어, 맹자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해변길과 수목원도 좋았지만 압권은 김창룡 교수(인제대 신문방송학과, 전 경남중재부 중재위원)의 「효율적인 조정·중재기법」 발표였다. 김 교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에 ‘쪼개기 방법’이 효과가 탁월하다고 소개했다. 경상도 말을 모르면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말 같다. 쪼개기는 웃는다는 뜻이다. 말을 걸어오거나 묻거나 따질 경우 먼저 쪼개면(웃는 얼굴로 대하면) 상대가 누그러지고 마음을 열고 말한다는 것이다. 모두 웃었다. 모두 크게 쪼갰다.

분쟁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조정과 중재를 이끌어내는 일, 이것은 일종의 예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중재위원의 몫이다.

이해관계 대척점에서 서로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자, 격분한 분쟁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조정과 중재를 이끌어내는 일, 이것은 일종의 예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중재위원의 몫이다.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합의가 낫다’는 말처럼 어떻게든 타협을 도출해 내려면

첫째,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둘째, 전문성을 가지고 보도내용과 신청인 주장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유사 사례를 제시하며 흥정(?)을 부치는 등 팀플레이를 한다. 이걸 중요한 협업이다.

셋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태도변화를 파악하여 분리 심리를 하면 효과가 크다.

공격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침착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설득한다. 쪼개면서 하면 조정 가능성이 더 커진다.

다 담지는 못했지만 참고할 만하다.





지금까지가 언론조정
의 소프트웨어였다면
토론 주제인 ‘피해구제
보도문 개선 현황 보고’
는 언론 조정의 중요한
하드웨어에 관한 것이
었다. 하드웨어의 확립
은 위원회가 국민과 언
론 사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하는 데 신뢰의 척

도로 가능될 수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신청인, 즉 언론보도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보도문은 그 동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보도’라는 표시도 없이 ‘바로잡습니다’, ‘알려왔습니다’, ‘고침’ 등의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제목으로 한두 줄 기사로 처리돼 온 게 현실이다.

피신청인(언론사측)은 누가(중재위), 무엇을(보도내용), 왜(정정 또는 반론으로 합의), 이런 기사(피해구제보도문)를 내게 됐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소가 아니고 바늘을 훔쳤다고 강변한다고 잘못이 유아무야되나? 떳떳하게 인정하는 것도 자신감인데...

따라서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이 오보나 부당한 보도, 불법보도, 과장·왜곡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비해서 너무 미약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2011년 9월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정·반론보도문의 구체적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9월에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의 주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11월 「언론조정중재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2월 「정정보도문 등 작성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였다. 소위원회가 제시한 4개 주요 개선사항을 소개한다.

- ① 기사 본문에서 제목을 추출
 - 원 기사의 핵심문구를 제목으로 채택, 독자 주목도 높임
- ② 보도 본문을 2단락 이상으로 구성
 - 잘못 보도된 부분과 정정 부분을 구분하여 이해도 제고
- ③ 언론중재위 조정에 의한 보도 표시
 - 조정·중재의 주체를 분명하게 주지
- ④ 부제소 조항과 이행강제 조항

보고서 4개 주요 개선사항이 피해구제보도문에 충실히 반영될 때 위원회의 권위와 함께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보고서 4개 주요 개선사항이 피해구제보도문에 충실히 반영될 때 위원회의 권위와 함께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위원회가 정한 4개항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조정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만약 이러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법원은 대체로 위원회의 결정대로 판결해 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 종합토론은 저녁식사 때도 계속됐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가운데 소통의 아우토파반은 뭐니 뭐니 해도 술 한잔이라며 주거니 받거니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쪼개기 강의 때만큼 웃어도 됐다. 🍷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 회장

성균관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언론중재위원 (2003. 9. ~ 2008. 1.)
 대한변협 공보이사, 총무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지검 행정심판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07년 변호사단체의 효시인 한성변호사회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고 지난 105년 동안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2011년 1월 취임 이후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변호사상을 구현하고, 변호사의 문턱을 낮춰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회가 되고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 회장을 만났다.

Q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을 위한 본연의 활동 외에도 사회공헌 및 나눔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옹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언론 피해자들에게 무료변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해 변호사회관에서 상시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하여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소년소녀가장, 재감자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외된 노인과 결손가정의 어린이, 장애인 보호 시설을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불우이웃을 위로하고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적 후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문화햇살콘서트 개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변호사 명예교사제도의 운영과 함께 분쟁조정 및 피해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지난 6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존 변호사회관 1개 실에 설치되어 있던 조정중재센터를 변호사교육문화관 13개 실로 확대 개소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조정중재센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조정중재센터를 확대 개소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민사 분쟁의 원

만한 해결과 소송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조기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외부조정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약 1,200여 건의 조정회부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조기조정제도는 법정심리 등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민간 조정위원들과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재판의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렇듯 분쟁의 가장 민주적인 해결책인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정중재센터를 확대 개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을 꾀하고 조기조정제에 대한 인식변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배출 인원을 포함해 변호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대해 법률시장의 혼란과 변호사의 취업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법제도연구특별위원회,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 법조인선발·양성제도개선특별위원회, 청년변호사지원대책특별위원회, 변호사업무대책특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립, 법조인력 전체의 수급과 법률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적정 여부를 조사·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변화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도 전달하고,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질적인 수준은 높이되 배출되는 법조인의 양적인 수준은 낮춤으로써 법률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해외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자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직역을 뛰어넘어 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회 각처에서 준법경영, 법적 분쟁 조정, 법치주의 확산 등에 기여하기 위해 변호사가 진출하여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준법지원인제도가 그 대표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들어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신이 높은 분위기인데, 재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송지본 재어성의(廳訟之本 在於誠意)’ 라고 했습니다. 송사를 다룸에 있어 그 근본은 성의를 다함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의는 사심 없이 마음을 열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며, 그것이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 접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입장을 신중하고 조화롭게 판단하여 당사자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2003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역임한 적이 있으시고, 그 후 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간의 소회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겪어보지 못한 언론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은 매체가 다양화해지고 융합되는 등 그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조정 대상의 범위와 함께 ‘잊혀질 권리’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윤리를 준수하고 인권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교육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재판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조정은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



언론중재위원회는 6월 27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공동으로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이 패널로 참가하여 피해자와 언론사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언론중재위원회 정학철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개인에 비해 국가기관과 교육기관의 조정신청 비율이 낮는데, 언론과의 마찰을 기피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언론중재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정상조 원장은 권영준 기획부학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언론분쟁 분야에서는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가 더욱 발전하여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의 확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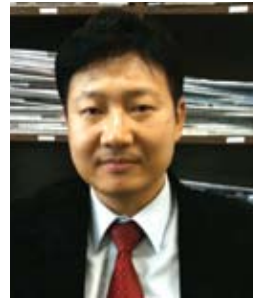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정책 관련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식과 그 문제점이 다뤄졌다.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

부장이 쌀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미국 측에 약속했다는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표현이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와 사실적 주장이라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제소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언론에 위축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정신청은 이와는 달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로스쿨 관련 보도의 문제점 및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된 3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보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그 주체로는 집단명예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대학원생 개인보다는 보도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로스쿨이나 그 협의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120여 명의 학생, 언론인, 시민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In San Diego, 4개월째



안 백 수
심리본부 전문위원, UCSD 연수 중

드디어 봄학기가 끝났다. 미국대학은 3학기제로 운영된다. 가을학기에 새 학년을 시작해 겨울학기를 거쳐 봄학기로 한 해 과정이 마무리된다. 그리고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학기말 방학이니 그 기간이 무려 3개월이다. 내가 적을 두고 있는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는 이 기간에 영어가 서툰 유학생들을 위해 Summer Session Course라고 하여 별도로 영어 향상 수업을 진행한다. 물론, 나도 이번 여름학기를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그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대학졸업 후 거의 사용해본 적 없어 녹슬 대로 녹슬었을 영어능력이 가장 걱정이었다. 그래도 막상 나와 보니 학창시절 영어공부에 투자했던 시간들이 아주 헛되지 않는음을 느꼈다. 충분히 준비하지도 못한 채 나왔지만, 그럭저럭 버

틸 수 있었던 것은 학창시절 때 흘렸던 땀 때문이었다. 미국에 온 지 2개월간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상대방의 핵심어만 붙들고 앞뒤 상황을 종합해 유추하곤 했다. 약 4개월째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영어실력도 별반 나아진 것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미국인이 겁나지는 않게 됐다. 미국인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지게 되니 막혔던 귀가 조금씩 뚫리고 있다.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는 용기도 생겼다.

나는 대학원 과정을 듣고 있는데 한 학기에 이수해야 할 필요학점이 12학점이다. 수업은 대부분 토론형태로 진행된다. 자연히 수업은 말 잘하는 현지 학생들 중심으로 진행된다. 유학생들에게는 듣기와 말하기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 읽고 쓰는 것은 잠을 줄여가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런대로 따라갈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나는 8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총 20학점을 수강했다. 덕분에 치기어린 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절감할 수 있었다. 짧은 영어실력으로 이를 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워야 했던지... 며칠 전 가을학기 수강신청기간이었는데, 이번에는 4학점만을 추가로 등록하여 총 16학점을 듣기로 했다. 주위에서는 필요학점만을 들으라고 충고해주지만, 막상 부딪쳐보니 공부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어 원래 내가 공부체질이었나(?), 싶기도 하다.

혈혈단신으로 뛰어든 샌디에고. 처음 한 달간 뒤통수해야 될지 몰라 좌충우돌하며 헤매 다녔다. 미국 은행 계좌 개설, 카드발급 및 개인수표 발행, 아파트 계약, 살림도구 마련, 자동차 구입, 운전면허 취득, 전화개설, 인터넷 및 케이블 TV 연결, 도시가스 연결, 자동차보험 및 집보험 가입, 본인 및 아이들 학교등록...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앞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한 선배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점차 제 궤도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시작단계에 있는 여정이긴 하지만, 이번 연수가 나에게 참으로 영광스런 기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샌디에고는 연중 쾌적한 기후와 멋진 자연경관으로 미국인들이 은퇴 후 살고 싶어 하는 대표적 휴양도시다. 이런 천혜의 지역에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 위원회와 묵묵히 나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는 동료직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



이승환
법무법인 솔루션 변호사

언론피해? 언론조정·중재 지원 변호사단에 맡겨봐!



필자는 일본 드라마 “호카벤”에서와 같이 공익사업을 전담하는 프로보노(pro bono,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에 대해 관심은 많았으나,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미약하던 차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론을 위해 체결한 언론중재위원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결성된 <언론조정·중재 지원 변호사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위 변호사단에 참여 신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탈북과정을 다룬 모 일간지의 기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사의 주인공과 만날 수 있었다.

신청인과 두 차례에 걸친 대면상담과 또 두 차례에 걸친 전화상담을 통해 일부 기사내용이 사실관계와 상이하다고 판단하고, 제도를 통해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리인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필자는 직업이 변호사이므로, 법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조정기구를 통해 많은 사건들의 조정·중재 사건에 대리인으로 출석을 해보기도 하고 조정위원으로 활동도 해보았지만, 언론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는 처음 접하는 것이었으므로, 조금은 긴장을 한 상태에서 조정심리실에 들어갔다.

필자가 대리한 사건의 해당 중재부는 법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과는 달리 5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이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조정사건과 유사하게 신청인의 신청 취지 및 신청원인에 대한 진술, 피신청인의 반박, 중재위원들의 조정·중재안 제시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재판이나 여느 조정절차와 마찬가지로 필자가 대리한 언론조정 사건도 서로 공방이 오가고 합의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지만, 중재위원들의 노고로 일부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나머지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를 각 게재하기로 합의하였고,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판결을 통한 인용액보다 턱없이 모자라 쉽게 종결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소비하고 말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뢰인 새터민은 사안의 특성상 증거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이북과 중국에서의 행적 등에 관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이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에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였고, 모 일간지 대리인께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상을 약속하셔서 당초 의견 교환이 되었던 손해배상액보다는 증액된 범위에서 최종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아쉬움이 남는다면, 조정·중재 사건의 특성상 비공개가 바람직할 수 있지만, (법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에서처럼) 사건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해관계 내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내지 참관을 적극 허가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필자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다고는 하지만, 필자보다는 중재부의 참관 불허가로 함께 하지 못한, 그의 남편이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었다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중재위원이나 필자를 통한 법률적 구조 이외에 그녀에게 필요한 또 다른 것이 분명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indicate’, 번역의 어려움을 시사하다



양재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2007년 8월 29일, 서울의 모처에서 한미 양국 고위 공무원들이 회동했다. 자리를 함께 한 사람들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포머로이 미 민주당 하원의원,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였다. 이 날 그들 사이에서는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

당시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안이 타결된 지 불과 두 달 후인데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협상 당시 우리 측을 대표했던 김 본부장이 미국 측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날 회동은 공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은 물론 세 사람이 회동했다는 사실조차 일만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지나갔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가 보다. 그로부터 4년의 시간이 흐른 뒤인 2011년 8월 30일, 그 날의 회동이 만천하에 폭로된다. 한 건의 미 정부문서가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올라온 것이다. 이 사실을 한 중앙일간지에서 ‘김 본부장이 쌀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미국 측에 약속했다’고 기사화했다. 기사의 토대가 된 미 정부문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일까? 원문 중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Kim indicated that the ROKG(Republic Of Korea Government)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된 단어는 ‘indicate’다. 이에 대해 기사에서는 ‘약속했다’고 썼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종훈 본부장은 약속한 사실이 없으니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이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은 … [언급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 「약속」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위 문건의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쌀 개방의 추가협상을 「약속」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는 점 … 등에 비추어 보면, … 2014년 이후 쌀에 관하여 재 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에도, 이 사건 보도에서 「약속했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가합116282 판결)

우리말 ‘약속하다’에 해당하는 영단어는 물론 promise일 것이다. 법원은 미 정부문서에 promise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점을 주목했던 것 같다. 그리고 indicate라는 단어는 ‘언급하다’로 번역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번역의 적절성 문제가 된다. indicate에는 ‘시사하다’를 비롯하여 다른 뜻도 많은데, 문맥상 가장 적절한 번역이 무엇인지라고 본다면 증거에 의한 존부의 판단이 가능한 문제인지조차 의문이 든다.

물론, 법원은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허위보도지만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것이다.

관장은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indicate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는 핵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여전하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 나라 통상교섭의 책임자가 외국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으며, 우리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했는지 여부다. 곡물자급률이 26.7%에 불과한 이 나라의 빈약한 식량주권과 직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 발언이 오간 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보도였다고 볼 필요가 있었나 싶다. 이것은 종래 우리 법원이 취했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에도 부합한다.

판결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일종의 indicator다. 법원 판결이 indicato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길 바랄 뿐이다. 🌈

이용재의 잡문 노트

<머니볼>과 야구를 보는 새로운 시각

이용재 (칼럼니스트)



슬슬 여름이 다가오니 야구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다. 여름이야말로 야구 관람의 제철이기 때문이다. 마침 야구 영화 <머니볼>이 개봉한지도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다. <머니볼>은 야구 그 자체 및 마이클 루이스 원작의 팬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원작의 핵심을 이루는 아마추어 선수 발굴의 과정을 거의 대부분 들어내

었기 때문이다. 오클랜드의 단장 빌리 빈의 선수 평가 및 팀 운영 철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 피터 브랜드(조나 힐 분)는 영화만을 위한 가상의 존재다. 실존 인물이라도 영화에 재미를 더 풀어넣기 위해 적당한 가공을 거쳐 화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메이저리그는 물론 그 젓줄 역할을 하는 마이너리그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영화의 개봉 시기에 들어보았음직한 이야기다.

물론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 또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빌리 빈 역의 브래드 피트를 위시한 배우들의 연기가 빛을 발해, 원작을 똑 떼어 놓고 영화만 생각한다면 아주 못마땅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도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석이 영화에는 존재한다.

야구 자체의 역사는 백 년을 훌쩍 넘기지만, <머니볼>을 가늠케 한 야구 철학의 역사는 아직 불혹을 바라보기 이전이다. 이렇게 새로운 야구 철학 역시 야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숫자, 즉 통계자료에서 비롯된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야구를 '숫자놀이'라고 비유한다. 어느 종목보다 통계자료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크고, 또 작전을 비롯한 경기의 운영에 빈번하

게 쓰이기 때문이다. 야구를 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도 또한 이렇게 야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숫자가 담고 있는 정보를 보다 더 깊이 있게 파헤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야구 연구회(Society for American Baseball Research)'에서 처음 비롯되었으므로, 그 첫 자를 딴 'SABR'로부터 '세이버메트릭스(Sabermetrics, 컴퓨터를 이용한 야구 데이터 분석)'라는 용어를 이끌어내 오늘날에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세이버메트릭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야구 연구가 빌 제임스(Bill James)는 미군으로 한국에 주둔 경력 또한 가지고 있는데, 군 제대 후 콩 통조림 공장의 보안 요원으로 일하며 남는 시간에 야구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선수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쓰는 통상적 기사와 달리, 그의 기사는 언제나 박스 스코어 등을 포함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분석적이라는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의 분위기와는 달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차츰 지지기반을 다지고 저변을 넓혀 오늘날 그러한 시각을 도입한 단장의 이야기가 책을 비롯해 영화로 만들어 지는데 큰 공헌을 했다. 2003년 이후부터는 보스턴 레드삭스를 위해 일하는데, 정확한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가 없지만 선수 영입 등에 관련된 자문을 통해 86년만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공헌을 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세이버메트릭스의 중요성은 이제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타자의 경우, 단순한 타율보다 출루율(OBP : On-Base Percentage)을 더 의미 있는 통계로 인정하기도 오래다. 안타이거나 볼넷이거나 상관없이 일단 출루를 해야 득점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투수의 경우, 예전처럼 공격력이나 운 등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승수보다는 방어율이나 그로부터 비롯되어 투수의 독자적인 투구 능력 자체만을 평가하는 FIP(Field Independent Pitching : 수비로부터 독립적인 투구) 등이 보다 더 바른 지표로 쓰이고 있다. 또한 수비력을 객관화하여 평가하려는 시도 또한 다양하게 제안되어 점차 정착 중에 있다. 🍷

COMMISSIONERS



서울지방변호사회 · 중국 베이징 율사협회 교류회의 참석



박중순 위원(서울제3중재부, 변호사)은 5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9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북경시 율사협회 교류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교류회의에는 서울과 베이징의 각 변호사사무소의 발전 방안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연례세미나 발제



손영준 위원(서울제3중재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은 5월 31일 강화도 세인관광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관 연례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손 위원은 '제18대 대선 방송보도의 당면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



김정탁 위원(서울제6중재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6월 7일 다산연구소와 관훈클럽이 공동 개최한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김 위원은 '다산과 소통'을 주제로 진정한 소통이란 인(仁)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것임을 역설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조성호 위원(대구중재부,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5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2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라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류석호 위원(경기중재부, 전 조선일보 경기취재본부장)은 6월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약칭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통일외지와 역량을 결집해 민족염원인 민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범국민적 통일기구이다.

창원지법 · 가야대 상호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고규정 위원(경남중재부,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은 6월 13일 창원지방법원과 가야대학교의 상호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창원지법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가야대 학생에게 폭넓은 현장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성 위원장, 경찰대학에서 특강



권성 위원장은 6월 14일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권 위원장은 공직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탈정치, 탈인기, 탈배금(脫拜金)을 뜻하는 삼탈(三脫)과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 기동력, 정보를 나타내는 삼보(三寶) 및 용기, 충성, 중용을 의미하는 삼귀(三貴) 등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덕목에 대해 강연했다.

서울중재부, 상반기 중재위원 업무회의 개최



권성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중재부 중재위원은 6월 25일 프레스센터 6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사무처로부터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지역중재부도 계획에 맞춰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집체연수 실시



위원회는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춘천시에 소재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사무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집체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에서는 나눔의 전도사로 유명한 가수 선의 나눔 특강과 함께 성희롱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으며, 체육활동을 통해 직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구유희 기획팀장, 정책토론회 참석



구유희 기획팀장은 6월 19일 ‘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미디어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주관)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구 팀장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중재위원 사퇴

▲이승훈 부장판사(대전지법, 대전중재부 중재부장)는 6월 28일자로 중재부장직을 사퇴했다.

사무처 인사

▲교육 [경찰대학 제26기 치안정책과정] 황정근 (2012. 7. 9.자)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자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문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 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 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선거일 : 2012년 12월 19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23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